

# “국민 신뢰받는 세정 구현 힘쓰겠다”

김중수 제56대 목포세무서장 취임

‘공정 세정·합리적 행정·소통’ 강조  
존중·배려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민생현장 목소리 경청 제도 개선도

“목포세무서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한한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김중수(50·사진) 제56대 목포세무서장이 지난 20일 취임했다.

목포세무서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 신임 서장은 “부족한 저에게 이 자리를 맡겨준 국세청

장게 감사드린다”며 “앞서 목포세무서를 잘 이끌어 준 전임 이진재 서장께도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무서는 국민의 세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걷어 국가 재정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따뜻하고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국세청”을 실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서장은 취임 일성으로 ▲공정 세정 ▲합리적 행정 ▲조직 내 소통·협업의 세 가지 중점 업무방향을 밝혔다.

김 서장은 “모든 납세자가 정당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등 국세청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되 탈세 행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더불어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불합리하게



나 불필요한 제도는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모든 직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전문성과 열정이 조직의 가장 큰 자산임을 잘 알고 있다”며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북 장수 출신인 김 서장은 세무대학교 13기로 1985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 국세청 법규과와 목포세무서 개인납세과장, 안산세무서 법인세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등 요직을 거쳤다. /목포=정해선기자



##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 ‘냉·난방비 지원 전달식’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은 지난 22일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2025년 냉·난방비 지원사업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지원사업은 혹서기와 혹한기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냉·난방비를 지원해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돌봄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최강남 단장은 “센터 아동들의 생활 환경 개

선을 위해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 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아동들이 무더위와 추위 속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제길 회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 광주 작은사랑동우회, 빛고을장학금 2천만원 기탁

광주시 봉사단체인 ‘작은사랑동우회’가 지난 22일 (재)빛고을장학재단에 빛고을장학금 2천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장학금 기탁식에는 빛고을장학재단 이사장인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작은사랑동우회 김승휘 회장과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승휘 작은사랑동우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기 위해 미래의 주역인 지역 인재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사랑과 희망을 나누기 위해 무

준히 나눔을 실천해주신 작은사랑동우회에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은사랑동우회는 1985년 결성됐으며 현재 회원 15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중·고등학생 생활자금 및 학자금 지원,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2002년 무등장학회에서 확대 개편된 빛고을장학재단은 매년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천453명의 중·고·대학생에게 49억3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변은진기자

## 광주여대 평생교육원, 파크골프 지도자 2급 수료식

광주여자대학교는 “최근 캠퍼스 내 정보통신관 4층 세미나실에서 ‘2025년 하계 파크골프 지도자 2급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수료식에서는 평생교육원 수강생, 담당 강사,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총 90명의 수강생이 파크골프 2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했다.

수강생들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파크골프 지도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했으며 앞으로 지역사회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명동 광주여대 평생교육원장은 “수료생들이 지역에서 파크골프 보급과 활성화에 앞장서며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현진기자



## HD현대삼호,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입장권 구매

(재)전남문화재단(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은 지난 22일 전남도청에서 HD현대삼호와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입장권 구매 약정을 했다.

약정은 HD현대삼호가 2천만원 규모의 입장권 구매를 통해 지역 대표 문화행사인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의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진행됐다.

행사에는 한정동 HD현대삼호 부사장과 관계자 2명이 참석했다. 구매한 입장권은 임직원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양시원기자

명창한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HD현대삼호가 전남 문화예술 발전에 함께 하는 의미 있는 동행을 해주 감사하다”며 “일주일이 앞으로 다가온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국내외 관람객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치러지도록 마지막까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문명의 이웃들’을 주제로 오는 30일부터 10월31일까지 목포·진도·해남 등 전남 일원에서 펼쳐진다.



## 전남도, 다문화가정 청소년 진로캠프 ‘성료’

전남도와 목포시청소년수련원은 지난 22일 까지 3일간 ‘2025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진로캠프’를 진행,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해 이들의 꿈을 응원했다.

캠프에 참가한 30여명의 청소년은 목포·여수 등 전남 일원에서 ‘꿈을 찾아가는 드림 런닝맨(Dream Running Man)’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꿈을 함께 찾아가며 잊지 못할 여름의 추억을 만들었다.

이들은 캠프를 통해 단순한 직업 선택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진로 탐색 기회를 넓히는 시간을 보냈다.

캠프는 현대삼호중공업 등 기관과 산업체 견학, 브이로그 제작 교육·체험 같은 인기 있는 직업 분야 직·간접 체험, 다문화 요리 체험 ‘우리가 만든 지구촌 밥상’, 전남 주요 관광지 견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또래들과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주재정기자

## 담양군산림조합, 수해 성금 500만원 기탁

담양군산림조합은 “최근 ‘괴물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담양군에 수해 복구 지원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조합은 이번 성금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일상 회복과 피해 임업인의 재기·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정철원 담양군수에 전달했다.

송진원 담양군산림조합장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재난 취약계층과 피해 지역의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산림조합은 ▲사방사업 ▲임도



사업 ▲병해충 방제사업 ▲경관조성사업 등을 수행하며 산림경영 지도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임업 경영에 필요한 정책자금과 서민금융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담양=정승규기자

## 이호성 무안군의회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위원 선임



이호성(사진) 무안군의회 의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24일 무안군의회 등에 따르면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호남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실행을 위해 지역 정치·행정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에 이호성 의장의 위원 선임은 무안군 현안을 중앙 정치권에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호성 의장은 “무안군민과 함께 걸어온 시간 속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호남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안의 발전이 곧 호남의 발전이라는 믿음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천하는 위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위원회 내에서 무안군의 주요 현안과 발전 전략을 적극 제안하고 지역 간 협력과 연대를 통해 호남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무안=김상호기자



## 포스코, 광양서 ‘스타트업 콘서트’

김관훈 두끼떡볶이 대표 강연 호응

포스코는 “최근 광양 성황다목적체육관에서 ‘두끼떡볶이’ 창업자 김관훈 대표를 초청해 ‘광양 스타트업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포스코의 ‘광양벤처밸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민과 예비 창업자들에게 벤처 창업자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창업 친화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사로 나선 김 대표는 “매운맛 창업, 달콤한 성공”을 주제로 창업 과정과 성공 비결, 스타트업 CEO의 리더십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푸드트럭 사업을 거쳐 2014년 ‘무한리필 즉석떡볶이’라는 독창적 콘셉트로 프랜차이즈 ‘두끼’를 창업, 1년 만에 전국 50여 매장을 확보하며 급성장했다.

2019년 매출 2천억원을 돌파했고 현재는 미국·대만·싱가포르·베트남 등 전 세계 400여 매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성장했다.

김 대표는 “좋아하는 한 가지에 몰입할 때 길이 열린다”며 “5년 안에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를 정하는 것이 성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광양=양홍철기자



## 전남대 동물병원 ‘줄기세포 치료센터’ 개소

전남대학교 동물병원은 “최근 ‘줄기세포 치료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센터 개소는 호남 지역 동물 의료 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만성·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반려동물들에게 최첨단 치료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줄기세포 전공자인 손영범 수의산과학 교수가 센터장을 맡아 치료 과정을 총괄한다.

줄기세포 치료는 임상 사례를 통해 ▲관절염 동물 보행 개선 ▲아토피 피부염 증상 호전 ▲탈모 동물 털 재생 ▲척추 손상 동물 보행 회복 등 유의미한 효과가 확인됐다. /박현진기자

## 부음

▲국순일씨 별세, 김상욱(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씨 장모상=발인 25일(월) 오전 6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7호(02-227-7500).